

구직명부대기자 시위 참여자에게 드리는 당부 말씀

지금은 선발포인트제 시험 기간으로, 시험장 책임자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EPS센터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우선, 시위대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국으로 완전한 고용보장을 해주라는 요구’ 관련입니다. EPS센터는 직접 고용이나 고용 알선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EPS센터는 시험을 통해 고용허가제 자격요건에 적합한 근로자를 공정하게 선발하여 구직자명부에 등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알선 프로세스에 의해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근로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시험 공고문에 나와 있듯이 이는 근로자의 고용을 100% 보장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네팔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양해각서에도 구직자명부 등재가 대한민국 취업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직명부등록 유효기간 연장해주라는 요구’ 관련해서, EPS센터는 어떠한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일부 구직자명부 등록자가 알선되지 않는다” 또는 “리터니(특별 한국어 시험합격자)는 파일이 없어졌다”라는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근로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때 파일 자체를 사라지게 하거나, 특정 사람만 알선시키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최근 EPS직원 또는 네팔노동부 직원이 돈을 받고 알선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가 있으면 네팔 경찰에게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허위로 이러한 사실을 유포하고 직원을 협박했다면, 이는 법적 처벌 사항입니다. EPS센터도 이에 대한 민·형사 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시위를 하시고 계신 분들의 안타까운 처지는 충분히 이해하며 평화적인 시위는 인정하지만, 시위 자체가 불법적으로 확산되고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진행중인 시험은 향후 연기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5년에 네팔에서 한국으로 알선되어 고용된 사람이 1만 1천 명이며, 이는 한국으로 고용된 전체근로자의 18.7%를 차지하며, 17개 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우리 EPS센터와 네팔노동부는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더 많은 네팔근로자를 한국에 취업시킬 수 있게 노력할 겁니다.

부디 오해를 푸시고, 한국-네팔의 우호 관계가 지속되도록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팔EPS센터장

